



해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⑩ 제10 법사품

#### 홍경의 삼계

이 품에서는 '바이사라자(藥王)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가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고 물으며, 여래 입멸 후의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의(義), 좌(坐), 실(室)의 '홍경의 3재(三軌)' 즉 실천해야 할 세 가지의 바른 길(法軌)을 설하고 있다.

"여래의 방(室)에 들어가, 여래의 옷(衣)을 입고, 여래의 자리(座)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경을 설해야 한다. 여래의 방이란 일체 중생에게 폭을 어긋는 대자비심(大慈心), 여래의 옷이란 유희인욕(柔和忍辱)의 마음, 여래의 자리란 일체의 현상(法)이 공(空)임을 말한다"라고 한다. 즉 여래의 방이란 중생에 대한 넓고 큰 자비의 마음이며, 여래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한 마음과 인내심, 그리고 여래의 자리란 일

사람들에 대해 우정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인은 이것을 보편적인 인애(仁愛)라고 부르는 것이다.

'비(悲)'란 범어 카루나(Karunya)의 번역으로 원래 '신음(呻吟)'이라는 의미인데 인생살이의 갖가지 괴로움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동감하고 동정하여 "음~"하고 내가 있고 네 속에 내가 '비'이다. 즉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느껴 마음 속에서부터 이해하고 격정해 주는 것이 '비'다.

결론적으로 평등성의 원리 위에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 눈을 떠야만 비로소 참 자비가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는 동체(同體)사상을 온몸으로 체득하여 부처님의 지혜(般若)를 완성(般若)하고 '남 죽 나', '나 죽 남'이라는 일체감(一體感) 속에서, 즉 나와



△해인사는 조계종 역대 중정 9명중 6명을 배출했다. 사진은 1987년 해인사법회 후 해암(10대), 성철(6·7대), 법전(11대), 일타스님(사진 오른쪽부터)이 자리를 함께한 장면. 사진제공:백련문도회

## “승가 위의를 수행력에서...”

### 특집 조계종 제11대 중정 법전스님

3월 26일 중정추대회의에서 조계종 11대 중정에 추대된 도림 법전스님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며칠간 미동도 않는 수행력으로 수좌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 '승가의 위의를 수행에서 나온다'며 오직 한길을 걸어 온 스님은 1974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안사 결사에 참여하여 조계종 중풍을 확립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공헌해 왔다. 그동안 설하신 법문을 간추려 실는다.

#### 출가의 마음

△흔히 출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신출가(身出家) 심출가(心出家) 신심출가(身心出家)를 말합니다. 몸이 출가한 것, 마음이 출가한 것, 몸과 마음이 같이 출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출가를 했는데 마음 씀씀이는 여전히 중생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행동은 유행(有爲)에 걸려 있으면서 입으로만 공(空)하다고 한다면 이 모두 제대로 갖추어진 출가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출가를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자라 할 것입니다.

△세속은 윤회의 길이요, 출가는 해탈의 길이니 해탈을 위하여 세속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부모의 깊은 은혜는 출가 수도로써 보답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의 은혜에 이끌리게 되면 이는 부모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생사해탈의 공부에는 인정이 원수입니다. 인정이 두터우면 그 인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이왕 출가했으니 모든 인정을 끊고 참으로 진취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의 자세  
△수행이란 원승이가 끊임없이 달을 건

지리고 하듯 자꾸자꾸 끊임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달을 <중도가(中道歌)>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의 달을 한 달이 포섭하다."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뿐인데, 이것이 천강만수(千江萬水)에 비치어서 달이 천개 만개가 되고, 그 천강만수에 있는 달은 모두 하늘에 있는 달 하나가 거두어 잡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법문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 달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성(自性)을 깨쳐야지 말에만 집착해서는 자성을 깨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잘못 공부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 이웃 생각하는 것이

#### 참된 조사선의 정신”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가는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모든 위의를 수행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승려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천장과 벽, 방바닥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움직이면서도 결제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제는 공부를 완전히 마쳤을 때야 비로소 해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제가 곧 결제라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바탕이 돼야 애초에 계율을 지키지 않고 부처님 심종(心宗)을 전수했다

는 소리를 이 산승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계(戒)로 인하여 정(淨)이 생기고 정으로 인하여 혜(慧)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는 기초이고 도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 두가지가 없다면 한몸을 어디에 의탁하겠습니까? 근본없이 지엽(枝葉)만 존재

는 투철한 견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 한 무리의 도적 중에 진짜 도둑도 있고 졸도둑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철 공부한 힘으로 어느 놈이 진짜 도둑이고, 어느 놈이 졸도둑인지를 가려내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철 법만 축내고 좌복만 덮게 한 허물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한 방에 대담 가야할 곳을 알면 천하 선지식들의 급소를 일시에 쫓아 버려라도 남지들을 아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물이 흐르면 강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주 스님의 발발에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불법의 핵심은 번잡스러운 언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법귀일(萬法歸一)' 공안은 많은 선객들의 의심덩어리였습니다. 도대체 만법은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눈썹을 곧추세우고 활활 타는 불덩이처럼 화두와 함께 살아도 같이 실며 죽어도 같이 죽으며 갈 때 같이 가고 머물 때도 같이 머물다가 출연의 의심이 생기거든 겁내지 마십시오. 큰 싸움에 임한 듯 다른 것 돌아볼 틈이 올바른 경계이긴 거슬리는 경계이긴 만나거든 잘 조화시키십시오.

△화두가 타파됐을 때 마치 잠정에 빠진 사자가 뛰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천하가 내손에 든 것 같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 경계해야 할 것

△경전의 말씀은 집착을 가장 경계합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을 최고로 받들고 귀의하지만 때로는 부처님을 꾸짖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 철저히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 깨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이 깨우쳐 주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의 말을 좇다가 보면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화선(看話禪)을 완성한 대혜종고 선사(大慧宗杲)를 물리치면

## 몸·마음 함께 출가해야 참수행자 생사 해탈 공부엔 人情이 원수

다. △초상화를 아무리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할지라도 진흙을 아무리 잘 다루는 도공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초상화는 초상화라는 그림에 요체(要諦)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림 이전(以前)의 모습을 보는 데 그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 이전의 요체를 볼 때만이 그림은 법이 되어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게 됩니다. 이럴 때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의식이 됩니다. 그림 때만이 참으로 제대로 그림을 볼 줄 아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체(道體)를 일으켜 계의 힘이 소멸하고, 계의 힘이 소멸하면 예법도 잃게 됩니다. 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천하의 인심을 어떻게 도로 돌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도 계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선은 이렇게

△참구하기는 쉽지만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요즈음에는 물기만 하면 손가락을 세우고 주먹을 불끈 드는데, 이는 망상본별일 뿐입니다. 모름지기 뱃속에 사무치

## 법사의 3실천덕목 衣·座·室 여래 마음으로 법보시 교시

체의 현상이 실제가 없는 공성(空性)임을 아는 것이니, 이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법을 설하는 것을 '의좌실(衣座室)의 삼계(三軌)' 혹은 '홍경(弘鏡)의 삼계'라 하여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설하는 법도(法度), 또는 바른 길이라 일컫고 있다. 이것은 법사 즉 법을 보시(布施)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서, 모든 사람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비란, 일반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는 사랑하는 마음 혹은 동정심 등의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감정만 의지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반쪽만의 이해밖에 되지 않는다. 자비란 함께 즐거워 하려는 마음이다. 즉 자비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든가 애타심(愛他心)이라든가 하는 말이 갖는 뜻보다도 더욱 깊은 불교 특유의 사상이 담긴 말이다. 자(慈)란 범어 마이트레야(Maitreya)의 번역으로서 마이트레야는 우(友) 즉 벗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깊은 뜻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이라는 상대적인 생각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아닌 자기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인 것이다.

다음으로 법을 설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 즉 일체의 존재가 공성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법을 설할 것을 말한다. 일체법공(一切法空) 즉 모든 존재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고 꿰뚫어 보았을 때, 보살 수행자인 보시자의 눈에는 이 세계가 너와 나, 사랑과 미움이라는 차별, 상대가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로 비쳐어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재무애의 경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지에서 상대방이 그 무엇에도 취착(取着)함이 없어 노사(老死)·수(愁)·비(悲)·고(苦)·우(憂)·뇌(惱)에서 해방(解脫)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법자의 태도이다.

<법화경>에서는 "여래의 자리란 일체 법공(法空)이며 이 가운데 안주(安住)하여 해탈(解脫)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보살 및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하라"라고 말한다. ■무수정사 조실

**특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 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춘추·하절기(모직, 순면, 특수직)를 맞아 승복 법복을 연구 검토하여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질 좋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판매 하오니 저희 기원섬유를 계속 아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님께 가사봉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합니다.

※ 특 정 (춘추·하절기)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0246178호)

- 고급모직 - 모직으로서 통풍이 아주 잘되고 가볍고 구김이 거의 없으며 물세탁 가능(세탁기), 시원한 느낌을 줌
- 순면 - 순면으로 스님들이 가장 즐겨입는 승복(무명에 가까움, 누더기모양)
- 특수직 - 가볍고 물세탁을 할 수 있으며 여름철 입기에 가장 편하고 품위있음(물세탁함)
- 장삼 - 춘추·하절기 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가방 - 이중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간경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주)한국자연과학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 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 "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고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의 제품을 만났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입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춘추·하절기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저고리 바 지	고급모직	남·여	170,000
	순면(누더기모양)	남·여	160,000
조끼	특수직	남·여	140,000
	고급모직	남·여	160,000
동방 바 지	순면(무명)	남·여	150,000
	특수직	남·여	140,000
장삼 (오성원2회)	고급모직	남·여	220,000
	특수직	남·여	200,000
셔츠	고급원단 (세이아·라온트)	남·여	30,000
기타	나들이가방, 바랑, 걸방, 손가방 등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지역 판매점 모집